

 국토교통부	<b>보 도 자 료</b>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3. 18.(목) / 총 7매(본문7)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 과장 윤의식 ☎ (044) 201-48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시티 챌린지</td> <td>양윤정事(4842) 김재준主(3738)</td> <td>타운 챌린지</td> <td>진해미事(4971) 양경동主(4846)</td> </tr> </table>				시티 챌린지	양윤정事(4842) 김재준主(3738)	타운 챌린지	진해미事(4971) 양경동主(4846)
시티 챌린지	양윤정事(4842) 김재준主(3738)	타운 챌린지	진해미事(4971) 양경동主(4846)						
보도일시	2021년 3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1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6개 지역 선정

- 도시 전역을 보다 스마트하게... 시티 챌린지에 부산, 제주, 강릉 선정
-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타운 챌린지에 광양, 서산, 원주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티 챌린지에는 부산, 제주, 강릉시가,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타운 챌린지에는 광양, 서산, 원주시가 선정되었다.

\* (시티) 강릉, 김해, 광주, 부산, 수원, 제주, 창원 (타운) 광양, 서산, 원주, 창원

-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시별 2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년간 계획 수립과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사업(국비 15억 원/곳)을 한 후,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받아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 타운 챌린지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1년간의 계획수립 기간(국비 3억 원/곳)을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 시 도시별 40억 원 규모(지방비 50% 매칭)로 1년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 《 시티 챌린지 》 - 무장애교통환경,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혁신

□ '21년 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교통환경을 구축해 포용성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와 공유 모빌리티를 연계해 도시 인프라의 혁신을 꾀하는 제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관광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방중소도시 성공모델을 제시한 강릉시가 선정되었다.

① (부산) 부산은 예비사업기간 동안 교통약자 비율이 36.5%\*인 동구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좋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실험하였다. '지하철역 실내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길찾기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가파른 비탈길로 이루어져 대중교통 연결이 부족한 산복도로 지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을 설치해 1,200여 명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였다.

\* 부산시 평균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 비율 28.3%

\*\* 승차공유플랫폼을 이용한 특별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차대기할 수 있는 공간

- 특히,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동승이 가능한 '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가량 줄었으며, 이동시간 38% 감소, 이동비용 45% 감소 등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 앞으로 본사업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션을 확대하고 부산시 전역에 배리어프리 스테이션과 승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자동차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세이프티존\*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이터랩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 횡단 중 사고가 잦은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구축



② (제주)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전기차 비율\*이 높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유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스마트 허브 모델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도 저장이 어려워 발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잦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이동·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주거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 그린모빌리티(전기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충전할 계획이다.

\* 차량 대수 중 전기차 비중 전국 1위(전국 0.5% 대비 5%), '23년까지 392천대 보급 계획

- 또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며 점점 이용률이 감소하는 주유소는 '스마트 허브'로 전환해 공유모빌리티를 대여·반납·충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 제주도는 예비사업기간 동안 스마트허브 8곳과 공유모빌리티 72대를 운영하며 탄소배출을 30톤\*가량 절감하고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1.44%의 통행분담률을 보였고, 신재생에너지 공유가 한 달에 4,490kwh 정도 확대되면서 지역커뮤니티의 판매수익도 월 1,383만 원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본사업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허브 모델을 더욱 확산해 나가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역 내 이웃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주도에서 120가구가 한달에 배출하는 CO2톤수와 유사한 수치

- 제주도의 스마트 허브 모델은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 제고를 통해 작년에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 ③ (강릉) 강릉은 편리한 대중교통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와 시내교통, KTX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획파인패스앱’이라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MaaS: Mobility as a Service)을 구축하고, 이러한 앱에 소상공인 매장 78곳의 실시간 정보를 연동해 예약기능도 제공했다. 시민참여 리빙랩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도 했다.

- 예비사업 기간 동안 7,800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획파인패스앱”을 설치해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기차 서비스를 이용



## 《 타운 챌린지 》 - 자원순환, 도시 안전, 교통 편의

□ '21년 타운 챌린지 본사업으로는 자원 순환 개념의 스마트 에코 타운을 조성하는 광양시,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의 스마트 안전모델을 구축하는 서산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통·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시가 선정되었다.

- ① **(광양)** 순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코포인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에코타운'을 구현할 계획이다. 스마트 쓰레기통과 폐지 수거시스템 등 자원순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코포인트를 적립하고 폐기물 수거, 공유 모빌리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
- ②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통행량이 많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드론을 출동시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응형 교통관리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 ② **(원주)** 3개의 대학교가 위치한 흥업면을 중심으로 '마을과 대학을 잇는 흥-Up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통해 원주역-마을-대학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급 상황을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 감지하여 대응하는 음성인식 영상보안 관제 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 등을 통해 대학가 원룸촌 일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번 발표자료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포털([www.smartcity.go.kr](http://www.smartcit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례가 타 지자체와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본사업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신규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1.12 공고)도 추진 중이다. 타운 및 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3월 말, 시티 챌린지 사업은 4월 말까지 총 16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시티 챌린지 4개, 타운 챌린지 4개, 캠퍼스 8개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교통약자 배려, 환경재해 예방, 생활편의 등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성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스마트 시티 효과를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앞으로, 탄소중립, 모빌리티 혁신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양윤정 사무관(시티 챌린지, ☎ 044-201-4842), 진해미 사무관(타운 챌린지, ☎ 044-201-497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